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0/26 일 23:09 시작 10/27 월 00:35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오만과 편견			저자	제인 오스틴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03년 09월 20일	번역자	윤지관,진승희
오늘의 북클럽 주제		오만과편견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오만과편견을 읽고 어땠는지 질문하고 답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함						
<p>평점/느낀점</p> <p>오*택 2.5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 않았고,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공감이 잘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특히 ‘장가를 잘 가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현대와 맞지 않아 공감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본다.</p> <p>장*희 3.0 전반적으로 공감이 잘 되지 않았고, 남녀 간의 사랑도 잘 이해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야기 속 로맨스가 허상처럼 보였고, 엘리자베스는 시대적 배경에 비해 수동적이지 않다고 보지만, 캐릭터성 자체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다소 남들과 다르다는 캐릭터성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금사빠처럼 바뀌며 캐릭터성을 잃었다고 느꼈다고 한다. 남자 때문에 자아를 잃는 부분도 보였다고 생각한다.남자 없어도 된다’는 진취적인 여성 서사의 시초 같다고 생각한다.</p> <p>김*영 3.0 캐릭터들의 개성이 중간 없이 매우 뚜렷해 흥미로웠다고 느꼈다. 책 제목 그대로 ‘오만과 편견’을 잘 보여주며, 사람들은 첫인상에서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는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p> <p>최*서 3.5 시대적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당시 기준으로 독특한 캐릭터성이 있는 로맨스를 잘 그려냈다고 생각한다. 다만 너무 많은 이야기 세팅으로 인해 읽을 때 캐릭터 이름이 헷갈려 필기를 하며 읽어야 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각각의 떡밥을 끝까지 잘 회수했다고 생각한다.</p> <p>등장인물들의 오만과 편견은 무엇이였을까요?</p> <p>오*택</p>						

제인은 세상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며 이것이 일종의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판단이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이 있고, 첫인상으로만 판단하는 오만이 결국 편견으로 이어졌다고 본다. 다아시는 첫인상부터 베넷 부인을 멍청하다고 여기며,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편견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콜린스는 '내 청혼을 왜 안 받아줌?'이라는 태도 자체가 오만이라고 본다.

장*희

엘리자베스는 다아시에 대한 첫인상의 편견으로 청혼을 거절한 점이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결혼이 강요되는 상황이었는데, 편견 때문에 거절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엘리자베스는 페미니즘의 시발점 같은 면이 있다고도 생각한다. 다아시는 빙리와 제인을 떨어뜨린 행동 자체가 큰 오만이며, '본인이 뭐길래 둘을 갈라놓냐'라는 생각이 들고 판단 미스라고 본다.

김*영

엘리자베스는 '저들보단 내가 똑똑하다'고 여기는 태도에서 오만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다아시는 무도회에서 여자들의 춤을 거절하고 폄하한 행동이 오만과 편견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본다. 또한 속물적인 면이 있다고 느꼈다.

최*서

엘리자베스는 잣대가 있고 자신의 가치관이 확고하다는 점에서 그 확고함이 편견을 쉽게 가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다아시는 기본적으로 오만을 바탕으로 두고 타인을 바라보며, 베넷 가족을 대하는 시선에서 편견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첫인상/오해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나요?(사람들은 왜 첫인상에 쉽게 끌리고, 또 쉽게 판단할까)

오*택

첫인상은 뇌과학적 반응에 가깝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고 여겨진다고 생각한다. 결이 맞지 않는 사람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김*영

사람은 관상학처럼 처음 봤을 때의 'झे한 느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봐온 사람들의 말투나 행동 패턴을 통계적으로 떠올리며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자신이 싫어하는 모습의 반대를 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상대에게서 보일 때 편견이 생긴다고 본다. 너랑 안 맞지만 싫어하진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희

첫인상은 본능적으로 결정되며, 사람들은 타인을 볼 때 본인과 닮은 점을 찾고 비슷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공통분모가 적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생각한다.

최*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첫인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 판단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책은 아직까지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오*택

제인 오스틴이 시대적 부당함을 절제된 풍자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하지 않은 선 안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었기에 오래 사랑받는다고 본다.

장*희

여성과 남성의 로맨스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의 본질적인 재미가 있으며, 시대적 클리셰를 잘 활용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김*영

정석적인 사랑 이야기이면서도 완성도 높은 서사 구조를 갖추었기에 한 시대를 넘어 꾸준히 사랑받는 작품이라고 본다.

최*서

적절한 풍자와 함께 인간이 살아가며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을 담아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매력적으로

느끼는것 같다.

그 시대에서 결혼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택

남성은 부만 있으면 결혼이 가능했고(그리고 그 부를 위해서), 여성은 가족과 생계를 위한 희생적 결혼이 대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영

현대의 취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며, 여성들은 결혼을 위해 교양과 매너 등을 교육받았고, 남성은 능력이 좋을수록 결혼 시장에서 유리했다고 생각한다.

최*서

여성의 생존과 가치 그 자체가 결혼에 달려 있었다고 생각한다.

장*희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보부아르의 말처럼, 여성은 결혼을 위해 길러지며 자아 없이 도구처럼 사용되었다고 본다.

다아시는 왜 엘리자베스에 빠졌을까요?

장*희

그 시대 여성과 다른 당돌함과 지적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 이렇게 대하는 여자는 처음이라는 점도 이유라고 본다.

오*택

엘리자베스가 당돌한 면을 가지고 있어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생각한다.

김*영

평범하지 않고 남다른 점을 지닌 인물이라서 끌렸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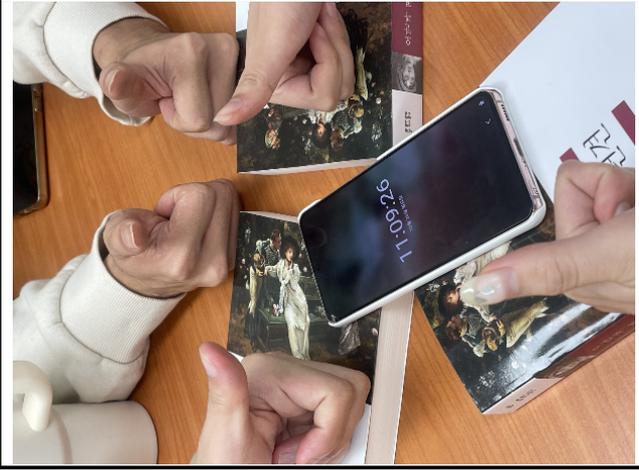
최*서

엘리자베스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활동 결과

『오만과 편견』을 읽고 진행한 이번 북클럽 토론에서는 각자의 관점에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 인물 성격, 그리고 ‘오만’과 ‘편견’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공통적으로 당시의 결혼 제도와 성 역할이 현대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공감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 속에서도 독특한 캐릭터성과 서사 구조가 작품의 매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엘리자베스와 다아시의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첫인상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의 경험과 연결해 해석을 덧붙였다. 또한 결혼이 여성의 생존과 사회적 가치를 대표하던 시대적 배경이 인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마지막으로 작품이 오랜 시간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선 절제된 풍자, 정석적인 서사, 시대를 초월한 감정 표현 등이 지속적인 매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다아시가 엘리자베스에게 끌린 이유 역시 그녀의 당돌함과 진취성, 그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는 태도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는 작품을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인간 심리와 사회 구조를 비판적으로 담아낸 고전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각자의 관점을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0/28 화 20:10 시작 10/29 수 00:04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오만과 편견			저자	제인 오스틴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03년 09월 20일	번역자	윤지관,진승희
오늘의 북클럽 주제		영화감상 및 비교비평				
활동 내용 & 방법						
영화 『오만과 편견』을 다같이 시청하고 책이랑 비교하며 토론을 진행함						
<p>평점/느낀점</p> <p>오*택- 1.0 책은 오히려 3.0점으로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영화의 각색이 지나치게 심해서 원작의 매력을 훼손했다고 느꼈다.</p> <p>김*영- 1.5 각색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아쉬웠다고 느꼈다. 이 영화를 통해 책이 생각보다 훨씬 길고 풍부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p> <p>장*희 -1.5 이 영화는 내가 알고 있던 오만과 편견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다고 생각했다.</p> <p>최*서-1.5 너 책을 먼저 읽고 영화를 본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내용이 빠져 있어 기대에 못 미쳤고, 텍스트가 영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했으나 아쉬움이 더 컸다.</p> <p>각색이 어떻게 되었는가?</p> <p>오*택 영화 속 엘리자베스는 책보다 훨씬 감정적으로 표현되어 캐릭터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느꼈다. 고백 장면들도 과도하게 감정적이었고, 배우들의 외형이나 분위기도 원작과 달라 이질적이었다고 생각했다.</p> <p>김*영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대적으로 변했다고 느꼈다. 배우들의 말투나 연기 방식 때문에 시대적 느낌이 줄어들었고, 엘리자베스가 감정적으로 묘사되면서 자막의 한계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현대적인 ‘바이브’가 강해졌다고 생각했다.</p> <p>장*희</p>						

짧은 러닝타임 안에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감정 전달이 너무 빠르고 선부르게 표현되었다고 느꼈다. 다만 손 장면(다아시와 엘리자베스가 손을 맞잡는 장면)의 각색은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전개는 전반적으로 급하고 감정선이 과하게 요약된것 같다.

최*서

주요 서사가 생략되어 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느꼈다. 특히 리지와 위컴 사이의 흐름이 거의 표현되지 않아 아쉬웠다.

상상속 이미지랑 너무 달랐던 점은 무엇인가요?

오*택

위컴의 존재감이 너무 약하게 느껴졌다.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잘생긴 미남 1' 수준의 엑스트라처럼 보였다. 다아시와 위컴의 첫 만남도 기대했던 긴장감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모와 이모부의 존재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스토리가 험거워 보였고, 여동생의 가출 부분도 급하게 지나가면서 몰입이 잘 되지 않았다.

김*영

빙리가 왔을 때 갑자기 정리하는 장면이 너무 뜬금없는 개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돼지 고환을 클로즈업하는 장면은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상상했던 분위기와 너무 달라 당황스러웠다.

장*희

무도회 장면도, 모든 프로포즈 장면도, 편지 장면도 내가 상상한 이미지와 전혀 달랐다. 특히 중요한 감정선이 담긴 장면들이어서 괴리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최*서

사촌과 살렐이 이루어지는 전개가 책에서 상상했던 분위기와 많이 달랐다. 카드게임 장면도 안담겨서 내가 기대한 이미지와 차이가 커서 낯설게 느껴졌다.

책 vs 영화, 무엇이 더 취향인가? 그 이유는?

오*택

책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책은 내 상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지만 영화는 이미 결정된 모습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상상과 다를 때 실망감을 준다. 이미 책을 읽은 상태라 더욱 영화의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김*영

책이 더 좋다. 영화만 봤다면 아마 '엥?'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 원작을 전부 담으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핵심이 부족해졌다. 차라리 일부만 가져와서 과감하게 각색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원작 기반 2차 창작의 어려움이 드러난 사례처럼 느껴졌다.

장*희

책을 더 선호한다. 글자가 전달하는 힘은 영상이 따라가기 어렵다. 영화는 글에서 얻었던 감정이나 사유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최*서

책이 더 좋다. 명작이라는 명성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영화는 내가 기대한 만큼의 충실함을 보여주지 못해 실망감이 컸다.

영화에서 '오만'과 '편견'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나요?

오*택

오만을 깨달는 과정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콜린스의 태도 정도만 오만하다고 느껴졌다.

김*영

책에서는 인물들의 오만과 편견이 교훈처럼 다가왔는데, 영화에서는 그저 특정 인물의 성격 문제 정도로만 처리된 느낌이다. 주제가 많이 약해졌다고 느꼈다.

장*희

책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만과 편견이 덜 드러났다. 캐릭터는 더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였는데, 정작

다아시는 책보다 더 유순하게 표현되어 아쉬웠다.

최*서

빙리 양과 캐서린 정도만 오만과 편견을 확실히 드러냈다. 전체적으로 이 주제가 충분히 표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영화가 대중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택

여주인공의 매력과, 책에서는 상상만 가능한 인물들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실제 얼굴과 표정, 분위기를 통해 몰입감이 높아진다.

김*영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영화로 대체해서 본다. 원작이 너무 유명하니 자연스럽게 따라 보게 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장*희

영화의 색감, 자연 풍경, 음악, 카메라 앵글 등 영상미가 뛰어났다. 시대를 고려하면 상당히 세련된 연출이라고 느낀다.

최*서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시각적 연출과 장면들이 상상 속 이미지를 구현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오만과 편견』 영화와 책을 비교하며 각자 느낀 영화의 장단점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 전체적으로 영화에 대한 평점은 낮게 형성되었으며, 공통적으로 과도한 생략과 각색, 감정 표현의 과잉, 상상했던 인물 이미지와의 괴리가 큰 아쉬움으로 언급되었다. 위컴의 존재감 축소, 뜬금없는 개그 연출, 무도회·프로포즈·편지 장면과 같은 주요 장면들의 이질감 등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책과 영화를 비교할 때 대부분 책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상상할 여지가 주는 깊이, 글이 가진 힘, 영화화 과정에서 사라진 서사의 완성도가 꼽혔다. 반면 영화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영상미, 배우의 매력, 책에서만 상상 가능했던 장면의 시각화 등 영화만의 장점도 확인했다. 전반적으로 이번 활동을 통해 각자 책과 영화를 기반으로 한 해석 차이를 나누고, ‘오만’과 ‘편견’이라는 주제가 영화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는지 검토하며 작품 이해를 확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02 일 23:27 시작 11/03 월 01:12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설국			저자	가와바타 야스나리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02.01.28	번역자	유숙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설국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설국을 읽고 어땠는지 질문하고 답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함</p> <p>평점/감상평</p> <p>오*택: 3.5 전체적으로 매우 일본적이고 일본 감성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 특유의 정서가 인상적이었다.</p> <p>김*영: 3.5 감성을 자극하는 분위기가 좋았다. 스토리가 더 흥미로웠다면 더 높은 점수를 줬을 것 같다.</p> <p>장*희: 3.5 문체력만으로 3.5점을 줬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크게 알맹이가 없다고 느꼈다.</p> <p>최*서: 2.0 내용이 부족하게 느껴져서 크게 몰입되지 않았다.</p> <p>『설국』의 겨울과 눈의 배경은 인물들의 감정이나 이야기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p> <p>오*택 겨울이라는 배경 덕분에 장면이 잘 그려졌다. ‘빨갳게 올라왔다’ 같은 표현도 겨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느꼈다.</p> <p>김*영 겨울이 아니었다면 이 책의 감성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이 작품은 겨울이라는 계절 덕분에 완성됐다고 느꼈다.</p> <p>장*희 허무함이나 덧없음이 눈의 속성과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눈이 녹아 사라지는 모습이 인물들의 사라짐과 자연스럽게 닮아 있다.</p> <p>최*서 그 씩씩한 감정을 겨울이라는 차갑고 쓸쓸한 배경이 잘 드러내 준 것 같다. 결국 남는 감정이 허무함인데, 이</p>						

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치라고 느꼈다.

단순한 줄거리인데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오*택

이 작품이 일본 문학을 대표한다고 불리는 이유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일본 특유의 표현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나랑 사귀어 주세요” 대신 “오늘 달이 참 예쁘네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감정의 결이 일본스럽게 묘사되어 있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김*영

일본이 해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정선에 묘하게 잘 들어맞아서 그렇다고 느꼈다. 말투나 감정 흐름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자극하는 느낌이라, 단순한 줄거리여도 일본 문학 특유의 감성이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장*희

이 작품이 일본 문학의 정수로 꼽히는 이유는 문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 문장부터 일본어의 리듬과 은유가 정말 잘 살아 있어서, 그 문체력만으로도 대표작으로 불릴 만큼 힘이 있다. 그래서 줄거리가 단순해도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 된 것 같았다.

최*서

이 책이 일본 문학을 대표한다는 말에 공감하는 이유는 문체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주는 분위기와 감정의 결이 워낙 섬세해서, 그 자체가 일본 문학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느꼈다.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사랑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아름답게 느낀 이유는?

오*택

요코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고 희생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반면 고마코는 굉장히 직진형 인물이라고 느꼈다. 시마무라가 결국 자신을 좋아해주는 여성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더 끌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사랑이라기보다는 시마무라가 본인 마음이 먼저 가는 쪽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영

전체적으로 불장난 같은 뉘앙스라고 느꼈다. 나는 시마무라와 고마코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시마무라가 유부남이고, 게다가 고마코의 직업 특성상 약간 유혹에 가까운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깊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저돌적인 관계처럼 보였다. 본능적인 도파민에 가까운 감정이 아니었나 생각했다.

장*희

일방적인 사랑도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마무라와 고마코의 관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진 못했다. 시마무라는 사실 고마코보다 요코를 더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게다가 시마무라가 고마코를 온전히 이성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은 이유가 ‘게이사’라는 직업 때문이라고 느꼈다. 그 점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었고, 그래서 더 역겨움까지 느껴졌다고 생각한다.

최*서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라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애뜻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에 가까웠다고 생각한다.

시마무라는 왜 고마코가 아닌 요코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꼈다고 말했을까요?

오*택

시마무라는 단순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분위기나 성품 같은 첫인상에서 끌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남자들은 보통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더 크게 반응한다고 느꼈다. 게다가 고마코는 게이샤이기 때문에 시마무라가 더 신중하고 날카롭게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신비로운 요코에게 마음이 갔다고 생각한다.

김*영

결국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감정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첫눈에 반했던 감정은 쉽게 이길 수 없다고 느꼈다. 시마무라가 요코에게서 더 큰 감정을 느낀 것도 결국 그 첫인상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장*희

요코는 일본식 이상형 이미지-정순하고 신비롭고, 사별의 아픔을 가진 캐릭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성향의 인물은 유부남 입장에서 더 쉽게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였다고 생각한다. 설국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이 요코의 분위기를 더 신비롭게 만들어, 시마무라에게 도쿄에서 벗어난 새로운 휴식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느꼈다.

최*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자기가 먼저 좋아하는 쪽에 더 강하게 마음이 간다고 생각한다. 기차 안에서 만난 신비로운 요코가, 게이샤로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마코보다 훨씬 더 끌리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느꼈다.

설국 전반에 흐르는 허무한 분위기는 인물들의 사랑과 삶을 어떻게 비춰준다고 느끼셨나요?

오*택

시마무라가 설국에 와서 유코와 고마코 같은 관계로 허무와 쓸쓸함을 달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관계가 이어질수록 오히려 더 허무해지고 쓸쓸해졌다. 유코는 죽고, 고마코는 떠나라고 말하고,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느낌이 강했다.

김*영

시마무라가 스스로 '헛수고'를 언급했을 때 허무한 분위기가 가장 크게 느껴졌다. 전체적으로 시마무라라는 인물이 가진 성격이 이 허무함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느꼈다. 삶도 사랑도 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장*희

요코라는 인물이 허무함을 가장 잘 상징한다고 느꼈다. 약혼자와 사별했고, 이미 '이별'을 겪은 존재다. 그 모습이 시마무라가 니가타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여정과 겹치며, 시마무라가 떠나는 장면이 요코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미지와 오버랩된다고 느꼈다. 결국 요코라는 캐릭터 자체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허무함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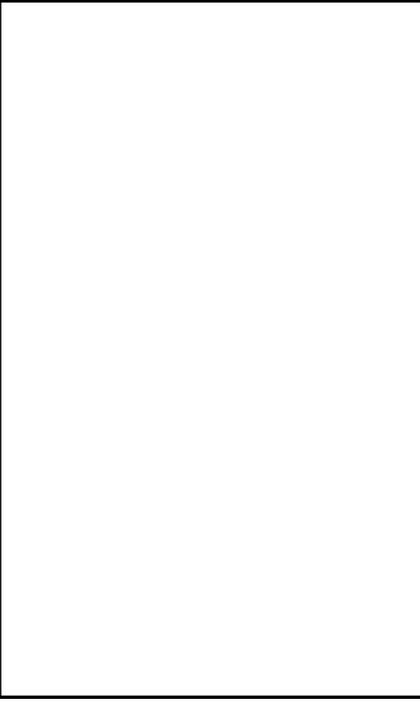
요코에 대한 마음도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시마무라도 떠나버리는 이 스토리 전체가 쓸쓸하다고 느껴졌다. 관계의 결말 자체가 허무함을 강조하는 방식처럼 보였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설국』을 읽고 등장인물의 관계와 작품의 분위기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작품의 감성적 문체와 겨울·눈이라는 배경이 감정과 분위기를 깊게 형성했다고 모두 공감했지만, 줄거리의 단순함이나 관계의 비정상성 때문에 높은 몰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시마무라가 고마코보다 요코에게 끌린 이유에 대해서는 '신비로움', '첫인상', '일본적 이상형'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고, 작품 전반의 허무한 분위기는 각 인물의 결말과 연결되어 강하게 느껴졌다고 정리되었다. 전체적으로 문체와 감성은 높게 평가했지만 관계의 구조나 이야기의 빈약함에서는 아쉬움이 드러난 활동이었다.

활동 자료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09 일 22:45 시작 11/10 월 00:29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사탄탱고			저자	크리스너호르커 이 라슬로
	출판사	알마 인코그니타	출판연도	2018.05.09	번역자	조원규
오늘의 북클럽 주제		사탄탱고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사탄탱고를 읽고 어땠는지 질문하고 답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함</p> <p>평점/감상평</p> <p>오*택: 1.0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읽는 내내 힘들었다. 시대적 배경도 이해하기 어렵고, 인칭이 계속 바뀌는 구성 때문에 따라가기가 벅찼다.</p> <p>김*영: 1.5 내용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가가 말하려는 바의 분위기나 방향성은 어느 정도 느껴졌다. 너무 심오해서 어렵지만 동시에 문학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느낌도 들었다.</p> <p>장*희: 2.0 읽기 힘들었지만 작품 자체에 대한 존중 때문에 2점을 줬다. 노벨상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이 책을 읽을 일이 없었을 것 같다. 이해는 거의 안 되고 스토리를 왜 읽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느꼈다. 문체는 지나치게 난해해서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고, 소설인데 대본처럼 느껴져 상상할 틈을 거의 주지 않는 점도 아쉬웠다.</p> <p>최*서: 1.0 문장이 끝도 없이 이어지며 숨 쉴 틈이 없어서 읽기가 너무 힘들었다.</p> <p>이리미아시는 마을 사람들이 구원자로 여기는 인물이자, 동시에 기만적인 사기꾼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리미아시를 어떤 인물로 해석하셨으며,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적으로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이비 같은 그의 말을 찰떡같이 믿었나)</p> <p>오*택 마을 사람들이 이리미아시에게 열광한 건 결국 ‘뭐라도 붙잡고 싶은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헐리치가 “우울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말해도 안 믿고, 이동할 때 “기도하자”라고 해도 무시하는 걸 보면 종교적 위로는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마을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무너진 혼란기였고, 그 불안정 속에서 ‘말로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인 이리미아시에게 더 큰 믿음이 쏠린 것 같다. 나는 이리미아시를 입으로 흥하고 입으로 망할 사람, 결국 선동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최종적으로는 무너질 인물로 해석했다.</p> <p>김*영</p>						

마을 사람들이 이리미아시를 따르는 이유는 기존의 종교나 이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이비가 흥하는 이유와 같다.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고, 희망을 던져주고, 스스로를 신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 마을 사람들이 워낙 힘든 상태라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광했다고 느꼈다. 내가 보기에 이리미아시는 그냥 사기꾼이다.

장*희

마을 사람들이 열광한 건 “죽은 줄 알았던 이리미아시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희망 때문이라고 본다. 이 사람이 돌아오면 마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버린 것이다. 증명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들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해 그를 따르게 된 것 같다. 처음엔 완전히 사이비라고 생각했는데, 마을 사람들 시점에서 보면 믿을 만한 사이비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제3자의 시점에서는 누가 봐도 의심해야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최*서

이리미아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의 메시아처럼 보이도록 꾸며진 사이비적 인물인것 같다.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빠진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마을 자체가 극도로 피폐해져 있고 모두가 불안과 결핍 속에 살고 있다 보니, 누군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사실인지 따지는 것보다 기대와 의존이 먼저 작동한 것이다. 게다가 이리미아시는 자신을 신비하게 연출하고, 사람들의 절망을 정확히 짚어주며, 모호한 약속과 희망을 던지는 식으로 전형적인 사이비 지도자처럼 행동한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그는 실제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진 존재로 과장되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라가며 자기 삶을 맡길 만큼 심리적으로 종속된다고 느꼈다.

거의 모든 장면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의사'와 무의미하고 잔인한 행동(고양이를 죽이는 행위)을 저지르는 어린 소녀 '에스티케'는 이 소설에서 독특한 역할을한다.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걸까?

(고양이를 왜 죽였을까?)

오*택

소녀가 고양이를 죽인 건 오빠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감정 충돌이 폭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일종의 판도라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 죽음과 해방을 연결하는 감정이 엇보인다. 반면 의사는 철저한 방관자, 신처럼 기록만 하고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존재다. 묵시록적 이미지와도 연결되고, 신 역시 자신이 만든 굴레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느낌을 준다. 결국 여자의 자살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본다.

김*영

고양이를 왜 죽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작가가 사건의 ‘발화점’을 강조하기 위해 소녀를 사용한 것 같았다. 소녀는 어른들의 추악함을 드러내는 장치이자 트리거였고, 작품이 갈 데까지 가는 느낌을 만들어낸다. 의사는 마을에서 그나마 지식인 역할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존재한다. 몰락 앞에서는 지식인도 무력하다는 메시지, 그리고 “신은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으나 아무것도 못한다”는 이미지가 겹쳐 보였다.

장*희

소녀가 고양이를 죽인 건 정신적인 불안정이 드러난 형태라고 생각한다. 주변 환경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자, 2부로 넘어가는 시발점이기도 했다. 의사는 관찰자의 역할만 하고 실질적 개입이 없어서 직업 윤리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만약 의사가 다른 행동을 했다면 우로보로스 같은 순환 구조가 아니라 완전한 파국으로 끝났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최*서

소녀가 고양이를 죽인 장면은 독자에게 “이제부터 이 마을이 본격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는 징후를 던지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이 이후 벌어질 파국의 시동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끝까지 관찰자에 머무르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기록만 남긴다는 점에서 이 세계의 무력함을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소설의 제목인 '사탄탱고'는 탱고 스텝을 연상시키는 12개의 장(6장 전진, 6장 후진)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조가 소설의 내용이나 주제를 전달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친것같은가요?

오*택

전진과 후진이 반복되면서 역순환적 구조가 드러난다. 1부에서는 희망을 보여주지만, 결국 2부를 지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강하다. 절망적인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조라고 생각한다.

김*영

읽으면서 “이게 이렇게 다시 돌아가네?”라는 느낌이 들었다. 던져둔 복선이 다시 회수되는 것처럼 보여서 신선한 구조라고 생각했다.

장*희

이 책에서 유일하게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다. 우로보로스 상징과 잘 어울리고, 전진과 후진의 반복을 통해 작품이 말하고 싶은 순환과 정체된 절망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최*서

되풀이되는 비극과 절망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종/ 종소리가 의미하는것은 무엇일까?, 순환이 반복되는걸 암시하는 걸까?

오*택

각 장면의 분기점을 알리는 소리라고 본다. 처음엔 위기 분위기를 만들고, 이후에는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너희는 파국으로 간다”라고 선언하는 포인트였다.

김*영

특이한 상황이 시작될 것을 암시하는 장치라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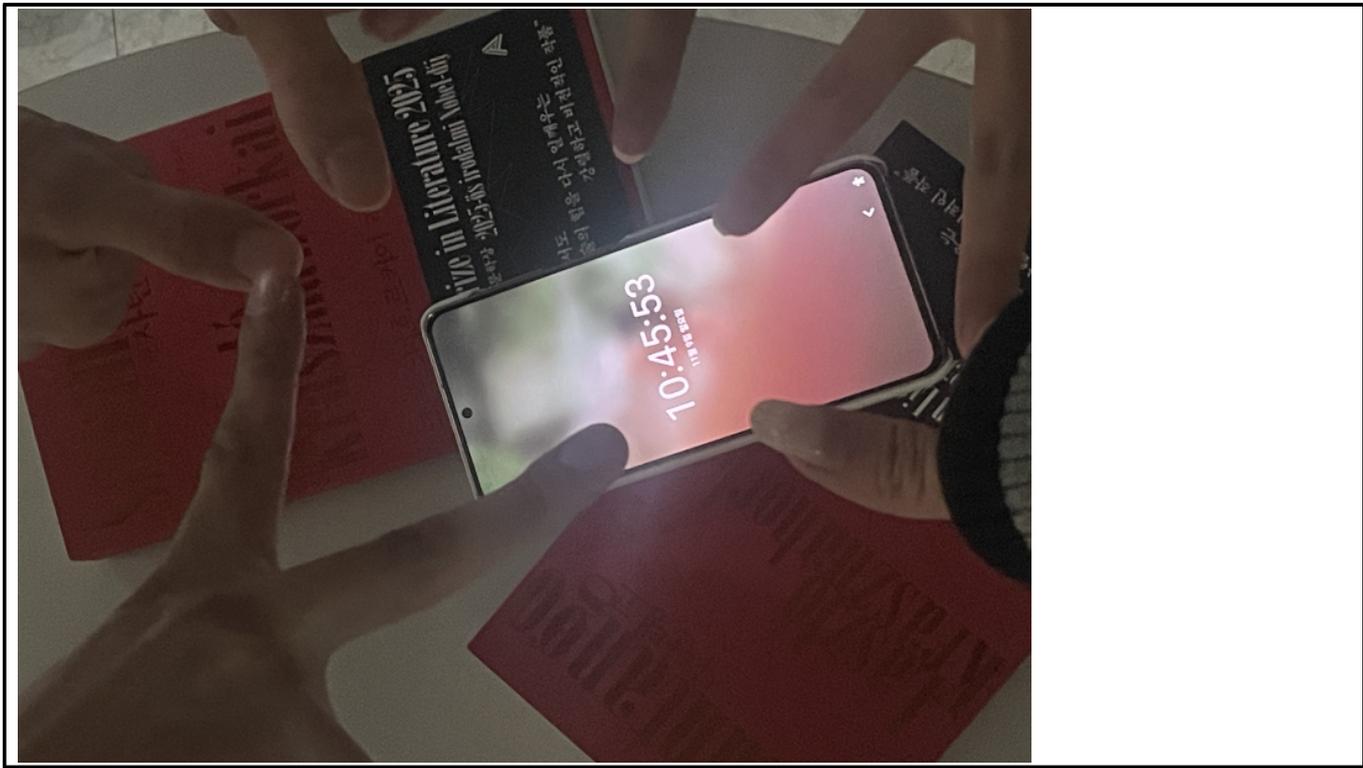
장*희: 종소리에 큰 의의를 두고 읽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뽑자면 게임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바이오하자드 re 4’을 보면 교회의 종소리의 울림이 그 지대를 장악하고 사람들을 조종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탄탱고에서의 종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탄탱고의 종소리 역시 교회에서 나왔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사탄탱고에서의 붕괴된 신앙, 어긋난 믿음 등을 차치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종소리를 통해 허무한 분위기를 강화하고 일명 ‘현실자각’을 하게 함으로써 이 시공창 같은 현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같다. 일정한 종소리에 따라 같은 소리를 반복함으로써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절망적인 현실을 암시한다.

최*서: 중요한장면들을 강조하기위한 트리거라고 느꼈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사탄탱고』를 읽고 작품의 난해한 문체, 순환 구조, 인물 해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논의했다. 대부분 문장의 길이와 난해함 때문에 읽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고, 가독성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리미아시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마을 사람들이 희망을 붙잡기 위해 그를 따랐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으며, 그는 사기꾼이자 선동자라는 해석이 우세했다. 소녀 에스티케와 의사는 사건을 촉발하거나 관찰하는 장치로 이해되었고, 12부 구성은 절망의 순환을 보여주는 효과적인 구조로 받아들여졌다. 종소리는 붕괴의 신호, 상황 전환, 혹은 절망적 분위기를 강화하는 장치로 해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주제와 구조, 인물 해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다각도로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10 월 21:35 시작 11/10 월 11:13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설국,사탄탱고			저자	가와바타 야스나리 크라스너호르카이 라슬로
	출판사	민음사,알마 인코그니타	출판연도	2002.01.28 2018.05.09	번역자	유숙자, 조원규
오늘의 북클럽 주제	왜 노벨을 받았는가 두개 비교 및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노벨문학상을 받은 두 작품 설국과 사탄탱고를 비교하며 토론을 진행함</p> <p>설국은 자극적이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왜 꾸준히 읽히고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오*택 나는 이 작품이 가진 일본적 감수성이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배경도 겨울이고, 제목도 그렇고, 묘사 방식도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짙게 담겨 있어서 편안함을 준다. 일본인의 성향이나 정서를 부드럽게 드러내는 표현들이 많아서 오래 읽히는 작품이 되었다고 느낀다.</p> <p>김*영 나는 ‘설국’이 읽기 편하다는 점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일본 문학 특유의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가 독자의 감정을 간질이는 느낌을 준다. 책을 읽다 보면 마치 그 장소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났다고 본다.</p> <p>장*희 나는 이 작품의 첫 문장이 너무 강렬해서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고 생각한다. 첫 문장이 유명한 만큼 “이 분위기가 어떻게 이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 실제로 그 기초가 전체에 녹아 있어서 끝까지 읽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선택되는 책이라고 느낀다.</p> <p>최*서 나는 첫 문장이 워낙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읽히는 작품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겨울을 텍스트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책이라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다.</p> <p>라슬로 크라스나호르카이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사탄탱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난해하고 암울한 이 작품이 노벨상의 가치와 대중적 관심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독자들은 이 상을 통해 작품의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오*택</p>						

나는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문장 표현이 직설적인 부분이 많아서 한국 독자 정서와는 조금 맞지 않는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새롭게 다가와 다시 주목받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김*영

나는 이 작품이 피폐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허상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도 연결된다고 느꼈다. 요즘 사람들도 쉽게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있고, 도박 문제나 빠른 성공 욕구 같은 현실 이슈와 맞닿아 있어 더 와닿는다. 그래서 노벨상 이후 사람들이 “이게 우리 사회랑도 닮았네” 하고 새롭게 생각해본다고 본다.

장*희

나는 이 작품이 노벨상 이후에 갑자기 주목을 받았다고 느꼈다.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는데, 상을 계기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독자들이 책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것 같다.

최*서

나는 노벨상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사탄탱고’를 읽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직전의 헝가리를 배경으로 한 절망적인 분위기와 인물들이 현재 사회의 여러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더 주목받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이 새로운 시선으로 비교해보게 된다고 생각한다.

《사탄탱고》는 쉽 없이 이어지는 긴 문장과 순환 구조로 혼돈과 절망의 세계를, 《설국》은 짧고 이미지적인 문체로 고요하고 덧없는 정서를 표현합니다. 이런 서로 다른 문체와 서사 방식은 각 작품의 세계관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독자에게 어떤 감정적·사유적 경험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오*택

나는 ‘설국’은 감성적인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읽히는 책이라고 느꼈다. 감성 카페에서 읽으면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다. 반면 ‘사탄탱고’는 한 순간도 집중을 놓치면 안 되는 책처럼 느껴졌다. 헝가리의 사회적·지형적 배경을 이해해야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 압박감이 있다. 묵시록적인 느낌이 강해서 공감하기도 어렵고 진입 장벽이 높았다. 읽기 편한 건 설국이고, 스토리의 구조적 탄탄함은 사탄탱고라고 판단했다.

김*영

나는 문체와 구조가 독자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가”를 결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편안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설국이고, 반대로 철학적이고 고뇌가 필요한 독서를 하고 싶다면 사탄탱고다. 사탄탱고는 온점이 거의 없고 괄호가 많은 문체 때문에 읽기 더 어렵게 느껴졌다. 문체가 달랐다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책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희

나는 사탄탱고가 읽는 사람에게 헝가리의 배경을 강하게 요구하는 작품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읽으면서 꽤 불편했다. 반면 설국은 지형적 의미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몰입이 쉽다. 사탄탱고의 문체는 직설적이면서도 읽기 거부한 면이 있어서 집중을 계속 잡아줘야 한다. 흐름을 따라가며 읽고 싶을 때는 설국이 더 맞고, 문장 자체를 깊게 분석하고 싶을 때는 사탄탱고가 맞는 것 같다.

최*서

나는 사탄탱고가 한 번 읽어서는 책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배경과 인물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 여러 번 곱씹어야 한다. 반면 설국은 상황이 머릿속에서 명확하게 그려질 정도로 표현이 디테일해서 편안하게 읽힌다. 그래서 두 책의 독서 경험은 크게 달랐다고 느꼈다.

'설국'은 개인의 고독과 덧없는 사랑의 허무라는 내면적 주제를, '사탄탱고'는 이데올로기 붕괴 후 구원의 허망함이라는 사회·철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두 작품이 각각 동시대와 후대의 독자들에게 보편적인 인간의 조건에 대해 제공하는 통찰력의 깊이와 영역을 비교해 설명해 주십시오.

오*택

나는 설국이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의 허무함을 통해 인간 관계의 덧없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사랑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유한함을 느꼈다. 반면 사탄탱고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기 희망이라고 믿는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그것이 자신에게 득인지 해인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모습이 무섭게 다가왔다.

김*영

나는 설국이 인간의 관계, 특히 사랑에 대해 단편적이지만 공감되는 통찰을 준다고 생각했다. 반면 사탄탱고는 성경처럼 해석에 따라 여러 층위가 생기는 책이고,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삶을 뒤흔드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든다. 이리미아시의 등장은 사탄의 유혹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 찾아오는 기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설국은 가벼운 주제를 통해 감정을 환기시키고, 사탄탱고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라고 느꼈다.

장*희

나는 설국이 인물 세 명의 감정에 집중해 현대인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말한다고 느꼈다. 반면 사탄탱고는 마을 전체의 이동과 붕괴를 통해 사회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리미아시에게 기대를 걸게 되는 모습이 누군가의 구원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인간의 약함을 보여준다고 느꼈다.

최*서

나는 설국이 덧없는 사랑과 고독이라는 내면적 감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모든 열정이 허무로 끝나지만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게 한다. 반면 사탄탱고는 이데올로기 붕괴 후의 허망함과 사회적 절망을 거시적으로 보여주며, 희망이 좌절되는 인간 조건을 직시하게 만든다. 설국은 개인의 감정적 허무에 대한 미학적 통찰이 깊고, 사탄탱고는 공동체의 붕괴를 통해 존재론적 절망을 넓게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사탄탱고와 설국은 서로 다른 배경(폐허 vs. 눈 덮인 마을)을 가지고 있지만, 둘 다 인간의 고독이나 희망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있다. 두 작품은 이런 감정을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나요?

오*택

나는 설국에는 희망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다고 느꼈다. 로맨스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탄탱고는 완전히 아포칼립스적이라 희망을 찾기 어려웠다. 등장인물이 도덕적으로 결여된 상황이라 더 그렇다. 시대적 배경에서도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느꼈다.

김*영

나는 설국은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 공감이 쉽게 간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탄탱고는 현대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 비현실적인 느낌이 강하다. 그래서 공감 자체가 다르게 작용한다고 느꼈다.

장*희

나는 두 작품이 모두 허무를 다루지만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설국은 사람의 감정에서 오는 허무와 쓸쓸함을 보여주고, 사탄탱고는 마을 전체가 붕괴하는 형태의 허무를 보여준다. 감정의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차이라고 느꼈다.

최*서

나는 설국이 인간관계 안에서 느끼는 허무함과 쓸쓸함을 섬세하게 그려서 독자에게 공감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한다. 반면 사탄탱고는 사회 전체에 생긴 폐허와 고독을 다루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규모의 허무함을 전달한다. 이 점이 가장 다르다고 느꼈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노벨문학상을 받은 두 작품인 《설국》과 《사탄탱고》를 여러 관점에서 비교하며, 작품이 꾸준히 읽히는 이유, 노벨상 수상 이후의 재평가, 문체와 구조가 독서 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간 조건에 대한 통찰, 그리고 고독과 희망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각자 ‘설국’의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문체가 주는 편안함과 일본적 정서, 첫 문장의 힘 등을 강조하며 오래 사랑받는 이유를 말했고, 반면 ‘사탄탱고’는 노벨상을 계기로 새로운 관심을 받으며 현실 사회와 닮은 점 때문에 다시 읽히는 작품이 되었다고 느꼈다. 또한 두 작품이 전혀 다른 문체와 구조를 통해 독자에게 완전히 다른 읽기 방식과 사유 방식을 요구한다는 점을 공유했고, 설국은 개인의 감정적 허무, 사탄탱고는 공동체의 붕괴에서 오는 철학적 절망을 보여준다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이 다루는 고독과 희망의 방식이 감정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뉘어 있음을 확인하며 두 작품이 각각 인간 조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16 일 22:53 시작 11/17 월 00:38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급류			저자	정대건
	출판사	민음사	출판연도	2022.12.22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급류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급류를 읽고 어땠는지 질문하고 답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함</p> <p>평점/감상평</p> <p>오*택:4.5 현재 장기 연애 중이라 그런지, 책 속 상황과 감정이 크게 공감되었고, 읽고 난 뒤 여운이 오래 남았다</p> <p>장*희:1.0 솔직히 나는 이 책에서 무엇을 느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읽으면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고, 책을 읽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개도 뻔하게 흘러가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 애쓰는 느낌이 들었다.</p> <p>김*영:4.0 높은점수를 준 이유는 '사탄탱고'의 영향이 없지않아 있다. (비교적 읽기 쉬움) 사건의 전말, 예를 들어 부모님의 오해가 풀리는 장면은 이해가 쉽지만, 전개가 예상 가능했던 점이 아쉬웠다.</p> <p>최*서:2.0 나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상평을 미리 보고 기대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막상 읽어보니 생각보다 재미 있었다. 다만 내 취향과는 완전히 맞지 않아 2.0점을 줬다.</p> <p>왜 베스트셀러일까?</p> <p>오*택 나는 어느 정도 로맨스와 해피엔딩, 그리고 오해가 풀리는 내용이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본다. 책 내용 자체에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다.</p> <p>장*희 나는 작품의 힘만으로는 아닐 것 같다. 한국 대중이 사랑할 만한 스토리, 출판사 민음사의 영향, 그리고 한국 사회의 불륜에 대한 관대함이 맞물린 결과라고 생각한다. 나는 서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몰입이 어렵다고 느꼈다.</p> <p>김*영</p>						

나는 이 책이 대중성 있고, 호불호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라고 본다.

최*서

나는 이야기의 흐름이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가볍게 읽기 좋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다.

소설의 제목인 '급류(急流)'는 작품 전체에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 왔나(물, 수영, 양성부력, 중성부력, 음성부력, 파도가 많이 언급됨,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던걸까)

오*택

나는 '급류'라는 제목이 아빠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다. 아빠가 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감정의 변화가 너무 빨리 변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급류처럼 소용돌이 친다는 점에서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나는 급류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캐릭터들 사이의 관계성과 그들의 감정의 격동을 상징한다고 본다. 해솔이 물에 빠지는 사건은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데, 나는 이 장면을 급류의 시작이라고 느꼈다. 그 사건을 통해 해솔과 도담이 서로에게 빠지게 되고,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결국 나는 제목 '급류'가 캐릭터들의 감정과 사건의 연쇄적인 흐름, 관계 변화의 빠른 속도를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장*희

나는 '급류'라는 제목이 말 그대로 빠르게 변해가는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도담이 아빠가 중성부력처럼 살아가야 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나는 급류가 비극의 시작을 상징한다고 느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클리셰적인 요소가 잘 사용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급류라는 상징이 단순히 메인 캐릭터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사건들까지 포함하는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나는 작품 전체가 급류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며, 캐릭터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 속으로 휘말려 가는 모습을 제목이 잘 드러낸다고 본다.

김*영

는 제목이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넘어,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 되는 장치라고 생각한다. '급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가 시작되고, 인물들이 비극 속으로 빠져드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느꼈다. 급류라는 물리적 현상이 곧 인생의 흐름을 상징하며, 나는 도담과 해솔의 삶 전체가 급류를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흘러간다고 이해했다. 즉, 나는 제목이 단순히 문학적 장치가 아니라 이야기의 구조와 결말까지 암시하는 중요한 상징이라고 본다.

최*서

나는 '급류'라는 제목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은유라고 느꼈다. 멈출 수 없이 흘러가는 급류처럼, 나는 세상과 사건이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본다. 작품 속에서 인물들은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거나, 때로는 침몰하거나, 때로는 표류한다. 나는 이를 각각 음성부력, 양성부력, 중성부력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느꼈다. 도담과 해솔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이런 급류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를 유지하려 애쓰지만,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제목 '급류'가 단순한 사건의 상징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면적 혼란과 불안정, 그리고 삶의 흐름 전체를 표현하는 은유라고 생각한다.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

-도담에게 해솔은 무엇인가?

-해솔에게 도담은 어떤 의미인가?

오*택

나는 해솔이 왕따였다는 배경 때문에, 도담이와 해솔이 서로에게 첫눈에 끌렸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연민이나 의무감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도담이는 해솔이의 엄마와 좋아하는 소녀의 아빠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사건에도 연루되고, 나는 이걸 통해 둘의 죄책감과 연민, 아이러니한 감정 구조를 봤다. 서로가 서로의 속마음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공유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관계가 묘하고 아이러니하다고 느꼈다.

장*희

나는 그 관계를 깨진 유리병에 비유하고 싶다. 깨진 유리조각을 하나하나 맞추려고 하지만, 어떤 조각은 영원히 없고, 거기에 물을 부으면 유리가 깨져버린다. 부모님 문제 같은 부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다. 둘은

끊임없이 깨진 유리를 맞추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이 계속 머리에 남았다.

김*영

나는 그 둘을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했다. 서로 같은 아픔을 공유하지만, 남들과 공유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로맨틱하다고 보기보다는, 불가항력적으로 얽힌 관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배트맨과 조커의 관계를 연상하며, 서로에게 독특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긴장을 가진 관계라고 봤다.

최*서

나는 도담과 해솔이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존재라고 느꼈다. 진짜 속마음을 서로만 아는 유일무이한 존재지만, 동시에 그 관계가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태다. 둘은 서로를 갈망하면서도 괴로운 감정이 드는, 나는 이 점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봤다.

도담과 해솔이 서로에게 느끼는 사랑은 구원이 될 수 있는 감정일까, 아니면 둘을 천천히 침몰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부담일까? 그들이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결국 관계를 어디로 이끌고 있다고 보는가?

(두 사람에게 사랑은 무엇일까? 두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지)

오*택

나는 도담의 사랑이 너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느낌이라고 봤다. 도담이가 추구하는 사랑은 해솔 자체가 아니라, 그녀 부모님의 사랑을 재현하려는 무의식적 욕망과 연결돼 있다. 아버지의 불륜 때문에 이미 균열이 생긴 사랑이라, 도담이는 진정으로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된 상태다. 해솔에게 호감을 가진 것은 맞지만, 하필 그 사건에 얽혀 있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 반면 해솔은 도담을 통해 삶의 일시적 구원과 동력을 얻는다. 하지만 도담은 아버지의 비극을 목격하며 정신적 외상에 갇히고, 나는 그가 스스로 망가져가는 파국적 과정을 지켜보며, 이들의 사랑이 서로를 살리려다 결국 한쪽을 병들게 하는 독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장*희

나는 이 사랑을 파국으로 향하는 관계로 봤다. 둘 다 서로에게 너무 소중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행동하고, 정당한 판단보다 감정에 휘둘린다. 도담이 해솔에게 느끼는 감정과 그에 따른 행동은 질척거리는 독특한 관계라서, 나는 그 사랑을 단순히 '사랑'이라고 부르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시궁창처럼, 건강하지 않은 형태의 애착과 집착이 얽힌 상태다.

김*영

나는 이 사랑이 결국 천천히 침몰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극복했으면 좋았겠지만, 둘 다 정서적 안정성이 부족하다. 초반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언젠가 폭발할 시한폭탄 같은 관계다. 그래서 나는 독자로서 긴장감과 불안감을 계속 느끼게 됐다.

최*서

나는 도담과 해솔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해가 되면서도 맹렬히 갈망하는 역설적 상태라고 봤다. 해솔은 도담을 통해 삶의 일시적 구원을 얻고, 다시 살아갈 동력을 찾지만, 도담은 아버지의 비극적 사랑을 목격하고 트라우마에 갇혀 스스로 파괴되는 과정을 겪는다. 결국 이 사랑은 서로를 살리려다 한쪽을 병들게 하는 독처럼 작용하며, 나는 이들이 느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아니면 자기 파괴적 결핍의 집착인지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된다.

승주와 선화는 도담과 해솔에게 어떤 감정적 영향을 주었나?/ 어떤 존재였나

오*택

나는 도담에게 승주는 큰 존재가 아니었다고 봤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고받지 않아도 관계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도담은 승주에게 끌리지 않았다. 결국 승주와의 만남으로 도담이 바뀐 점은 거의 없었다. 반면, 해솔에게 선화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나는 선화가 해솔을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느꼈다. 병간호를 해주고, 사고방식을 알려주고, 사회생활하는 법을 가르쳐 해솔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선화 덕분에 해솔은 살아갈 힘을 얻었고, 나는 해솔이 선화에게 헤어지자고 한 장면이 너무 이해되지 않았다.

장*희

나는 승주가 연인 같으면서도 애매한 존재라고 느꼈다. 감정적 소비 없이 시작한 관계였지만, 끝에서는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이 보여 실망스러웠다. 선화는 해솔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존재였고, 해솔이 선화를 상대로 보인 무미건조함은 이해가 안 갔다. 나는 선화가 해솔을 돌보고 인간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었다

고 보며, 선화의 헌신과 희생은 단순히 주변인의 역할을 넘어선 큰 의미를 지닌다고 느꼈다.

김*영

나는 이야기 전개상 다른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첫사랑의 의미를 깨닫는 장치로 승주와 선화가 기능한다고 봤다. 해솔에게 선화는 헌신적 존재였고, 도담에게 승주는 덜 헌신적인 존재였다. 두 사람 모두 전개상 희생당하며, 나는 이를 통해 관계의 균형과 인간적 성장을 엿볼 수 있다고 느꼈다.

최*서

나는 승주는 도담에게 큰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냥 지나가는 전남친 정도였다. 반면, 선화는 해솔을 구원하며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 중요한 존재였다. 선화가 없었다면 해솔은 여전히 인간성을 상실한 채 방황했을 것이다. 나는 선화에게 해솔이 헤어지자고 한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도담과 해솔에게 가족은 무슨 의미일까? 이 두 사람이 가진 '가족의 의미'는 도담과 해솔의 관계를 어떻게 흔들고, 또 어떻게 형성했다고 생각하는가?

오*택

나는 해솔에게 가족이 도담만큼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느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마, 아빠, 형제라는 구조에 비하면 해솔의 가족은 적다. 해솔에게 할머니는 도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의지처였고, 나는 이것이 약간 대체재 같은 느낌이라고 봤다. 반면 도담에게 아빠는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였다. 아빠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고, 사람을 구하는 영웅적 순간을 목격하며 인생의 기준을 배우지만,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죽음으로 끝나는 과정을 보며 도담의 인생은 아빠로 시작해서 아빠로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다. 엄마와의 관계는 도담에게 특별함이 없었다. 아픈 엄마에게 병간호를 했더라면 감정이 다르게 드러났겠지만, 나는 도담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생일 초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도담이의 무미건조한 태도가 드러나 가족 관계의 단절을 보여준다

장*희

나는 도담에게 가족은 원래 부모님처럼 되려 했지만, 불륜으로 인해 균열이 시작됐다고 본다. 도담은 엄마에게 큰 감정을 보이지 않고, 엄마를 눈꼽만큼이라도 생각했다면 해솔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도담에게 엄마는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봤다. 반면 해솔은 가족 관계를 외면하지 않았다. 해솔은 엄마와 계속 연락하고, 할머니, 삼촌과 유대를 유지하며 사건을 직면하려 한다. 나는 도담이 가족을 무시하고 해솔을 선택한 반면, 해솔은 가족과 함께 직면하려 한 점이 두 사람 관계의 큰 차이라고 생각한다.

김*영

나는 해솔의 할머니를 도피처로 봤다. 진평에서 생긴 오해 때문에 도망칠 수 있는 장소였지만, 완전히 안식처라고 보기는 애매하다. 나는 도담이 해솔에게 돌아가야 하는 정당성을 이 도피처가 희석했다고 느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불쌍한 상황이지만, 기능적으로는 도담과 해솔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최*서

나는 도담이 해솔의 할머니를 찾아가며 분식집에서 돈을 쓰는 장면이 기억난다. 장례식에서도 도담이 해솔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알았고, 할머니 역시 도담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꼈을 것이다. 상황적으로 분리가 필요했지만, 할머니는 내시킴의 행복을 위해 도담과 해솔이 만나도록 했다. 나는 할머니가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급류』를 읽고 작품의 전개, 제목의 상징적 의미, 인물 관계, 가족과 주변 인물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평점과 감상평에서는 전개가 예상 가능한 점과 개인적 공감, 의미 전달력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왔고,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된 배경으로는 대중적 취향, 로맨스적 요소, 갈등의 해소, 출판사 영향 등이 언급되었다. '급류'라는 제목은 사건과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며, 등장인물들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균형을 찾거나 표류하는 모습을 은유한다. 도담과 해솔은 서로의 상처와 속마음을 가장 잘 아는 유일한 존재지만, 관계는 아이러니적이고 파국적이며, 사랑은 서로를 잠시 구원하기도 하지만 결국 부담과 자기파괴적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이 나왔다. 승주와 선화는 각각 도담과 해솔에게 감정적 영향을 주며, 특히 선화는 해솔이 다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가족은 두 사람의 선택과

관계 형성에 복합적 영향을 끼쳤다. 전반적으로 작품의 사건, 인물, 상징, 관계를 통해 혼란과 인간 내면의 갈등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23 일 22:52 시작 11/24 월 00:42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불안세대			저자	조너선 하이트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출판연도	2024.07.29	번역자	이충호
오늘의 북클럽 주제	불안세대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p>불안세대를 읽고 어땠는지 질문하고 답을 공유하며 토론을 진행함</p> <p>평점/감상평</p> <p>오*택:2.5 나는 읽으면서 반복되는 내용이 많아 지루하게 느껴졌다. 책이 말하려는 의도를 알 것 같긴 하지만, 대상이 나보다는 더 넓은 독자층이라서인지 공감이 깊지는 않았다.</p> <p>장*희:3.0 교육적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적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교본처럼 필요할 법한 책이지만, 우리가 이미 병든 상태에서 읽으니 와닿는 정도가 적었다. 인터넷과 SNS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내용이 다소 퇴보적으로 느껴졌다.</p> <p>김*영:3.0 나는 4점 평가를 줄 만한 내용이 많고, 2점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적 목적에서 의미가 있고, 위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책이지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p> <p>최*서:2.5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내용이고, 한 번쯤 읽어볼 가치가 있다고 느꼈다.</p> <p>가장 충격적이었거나 인상깊었던 데이터나 주장이 있나요?</p> <p>오*택 여자가 더 피해를 입는 느낌이 들었다. 우울증이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읽으면서 진화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남자는 비디오게임에 몰입하고, 포르노나 말초적인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 반면, 여자는 감정이 크게 요동쳤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이 원래 이렇게 진화한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며 읽었다.</p> <p>장*희 십대 우울증이 2.5배 증가하고, 여자 청소년 자살률이 167% 증가한 통계가 충격적이었다. 우울증은 그렇다</p>						

쳐도 자살률이 오른 점은 놀라웠다.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집착하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미디어 영향으로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건 놀라웠다.

김*영: 자해 관련 정보가 인상 깊었다. 내 주변에도 자해한 친구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연관 지어 생각하며 읽게 되었다.

최*서: 그래프 수치 자체가 놀랐다. 자살률이 SNS로 인해 이렇게 급증했다는 사실은 몰랐다.

소셜 미디어가 소녀들에게는 우울, 불안, 관계형 공격성을, 소년들에게는 고립, 중독성 활동(게임, 포르노) 증가라는 상이한 패턴의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오*택

나는 남녀 차이가 진화론적, 감정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장*희

남학생들도 소속감이나 인정에 집착하지만, 여자아이들만큼 집중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본인만의 세상에 빠져 도피하고 게임이나 포르노를 즐기는 반면,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며 고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김*영

생물학적 요인으로 우울이 여자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 사회적 요인으로 남자는 무리에서 떨어질 때 게임이나 포르노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미지 때문에 몰입하는 것 같다.

최*서

여자는 남들과 비교하며 강박을 가지는 경향이 강하고 외모지상주의가 심해 SNS로 인해 이런 강박이 더 심해진 것 같다. 남자는 비교적 덜 강박적이며, 게임과 포르노를 즐기고 공유하는 데 집중한다.

4대 보호 조치'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계정 사용 제한 등) 중,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하며 현실적인 저항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오*택

나는 개인적으로 나이 확인 과정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갓 스무 살 정도 되는 청년들에게는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50~60대에게는 크게 필요성이 체감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지만, 도입 자체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다.

장*희

나 역시 나이 확인 과정이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크게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실용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김*영

나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금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이 책을 읽기 전부터 필요성을 느꼈다. 학교는 성장 과정에서 친구들과 현실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최소한 학교 안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 목적을 내세워 자연친화적 방식으로라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요즘 청소년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도 학교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못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최*서

나도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예전에 그렇게 해봤고, 학교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학교 안에서는 폰 없이 생활하는 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하이트는 기술 의존도를 낮추고 '아날로그 생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독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놀이, 독서 등 아날로그 활동을 늘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오*택

나는 개인적으로 도파민에 길들여진 상태에서 보상이 없으면 아날로그 활동으로 전환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시도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이미 보상 체계에 익숙해져 있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스스로 동기를 찾지 않으면 잘 실행하지 못할 것 같다.

장*희

나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다. 인터넷 밈이나 온라인 용어로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된 상태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책이나 영화 감상, 친구와 대화로 줄이는 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일 것이다. 대면 대화보다 카톡이나 DM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장기적 실천이 어렵다.

김*영

나는 운동처럼 다른 목적이나 목표를 세워 시간을 보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결국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동기부여해야 가능한 일이다. 혼자서 동기 부여를 찾지 못하면 아날로그 활동을 늘리기 어렵다.

최*서

나는 스스로 줄여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식사 시간이나 자기 전 30분 정도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날로그 활동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책은 현재의 청소년 세대가 이전 세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독자들은 청소년들의 '온라인에서의 삶'과 '오프라인에서의 삶'의 비중 변화가 그들의 심리적 발달에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오*택

나는 우리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친구들이 말하지 않아도 놀이터에 다 모였고, 시계가 없어도 엄마들이 밖에서 “밥 먹어라”라고 소리쳤다. 스스로 시간을 조절하고 모임을 관리하는 경험이 자연스러웠다. 지금 청소년들은 모든 모임을 폰으로 한다. 그때는 폰 자체가 신기했고, 집전화로만 연락했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살았는데, 지금은 카톡이나 DM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볼 수 있어 삶의 방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

장*희:

나는 인스타그램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의 소속감이 좋지 않게 강화되었다고 느낀다. 인터넷 속 정보와 관계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온라인에서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심리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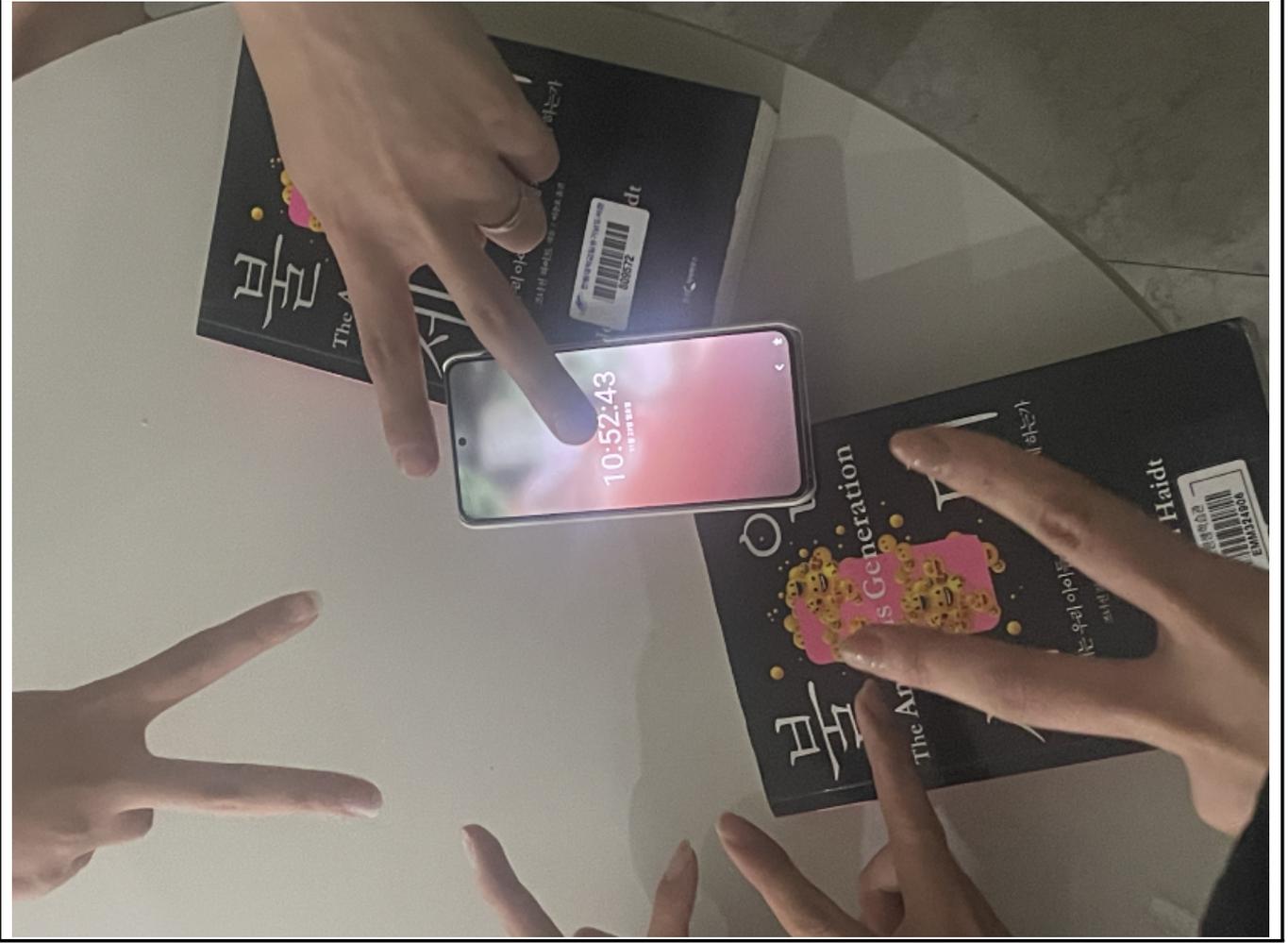
나는 사회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만 관계를 맺으면서 현실적인 사회적 경험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최*서

나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너무 강해졌다고 느꼈다. 대면으로 만나도 스마트폰을 하면서 서로 직접 교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직접 만나 교류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은 심리적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삶의 비중 변화가 청소년들에게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책을 통해 새삼 깨달았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불안세대』를 읽고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소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행동 패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평점과 감상평에서는 반복적이라는 의견과 교육적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의견이 혼재했으며, 일부는 부모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평가했다. 충격적이었던 점으로는 여자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률 상승, 남자 청소년의 게임과 포르노 몰입 등이 있으며, 성별 차이는 진화적·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해석되었다. 4대 보호 조치 중에서는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와 나이 확인 과정이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되었고, 아날로그 생활 회복은 기술 의존과 개인주의적 성향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삶의 비중 변화는 청소년의 소속감, 사회성, 대면 교류 능력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전 세대와 달리 스마트폰과 SNS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24 월 22:15 시작 11/25 화 01:18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불안세대			저자	조너선 하이트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출판연도	2024.07.29	번역자	이충호
오늘의 북클럽 주제	불안세대, 넷플릭스 다큐 소셜딜레마 비교 비평					
활동 내용 & 방법						
넷플릭스 다큐 『소셜딜레마』를 다같이 시청하고 책이랑 비교하며 토론을 진행함						
평점/감상평						
오*택:1.5 불쾌했다. 극단적인 사례만 보여주어 가스라이팅 당하는 기분이었다.						
장*희:2.0 교육적인 목적은 이해하지만, 다큐치고는 최악의 과정들만 담겨 있었다. 경각심을 위한 목적은 알겠지만 과정이 너무 노골적이었다						
김*영:1.5 불안세대와 비슷한 뉘앙스지만 좀 더 자극적이라 누군가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오바하는 것 아닌가 반감을 가질 수 있었다. 비디오 매체로 보여주다 보니 그런 느낌이 강했다.						
최*서:2.0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해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최악만 보여주어서 경각심을 주기에는 좋은듯 하다.						
두 매체는 모두 소셜 미디어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소셜 딜레마는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착취)'에,불안세대는 '아동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 및 놀이 부족'에 더 집중한다. 이 중 어떤 관점이 현대의 불안을 설명하는 데 더 근본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오*택 다큐에서 인사이드아웃처럼 세 명이 작동하는 장면이 불쾌했다. AI에게 조종당하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를 하나의 상품으로 보면서 인간성을 깎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극단적으로 문제를 보여준 것이 영상이지만, 이런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기에 심각성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장*희 아동 세대에 대한 영향이나 걱정은 교정이 가능하지만, 알고리즘 문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도 계속 순환되고, 이 과정이 착취로 이어진다. 수습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비교하면 책과 다큐를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김*영

알고리즘이 비슷한 관심사만 반복적으로 보여주니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인다. 요즘 숏폼 영상이 더 선호 되니 뒤처지면 불안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

최*서

소셜 미디어 자체도 미디어이므로 불쾌감을 주는 구조가 존재한다. 하나의 거대한 과정 안에 갇힌 느낌을 받았다. 소셜 미디어로 소셜 딜레마를 보는 경험이 그런 감정을 강화시켰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도구의 주인'으로서 기기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삶과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사용 철학'이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은 무엇으로 정립하고 실천할 계획입니까?(앞으로 어떻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할것인가)

오*택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므로, 미디어를 사용할 때 현명한 방법을 찾으며 올바르게 사용하려고 한다.

장*희

내가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내에서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의 활용을 하고자 한다.

김*영

소셜 미디어는 일종의 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처럼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는 만큼, 단순히 도파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최*서

소셜 미디어를 효율성 있게 활용할 것이다. 필요한 목적에 맞춰 사용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한다.

활동 결과

이번 활동에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소셜 딜레마』를 시청하고 『불안세대』와 비교하며 소셜 미디어가 현대 청소년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평점과 감상평에서는 다큐멘터리가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례만 보여주어 불쾌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느낌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경각심을 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과정이 노골적이고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두 매체의 차이를 비교하면, 『불안세대』는 아동 발달 단계와 놀이 부족 등 인간 발달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소셜 딜레마』는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착취 구조를 강조하며, 이는 인간을 상품화하고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보여준다. 알고리즘은 개인이 조정하거나 피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므로, 오히려 『소셜 딜레마』에서 보여주는 착취와 조종이 현 세대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설명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논의에서는 또한 소셜 미디어 사용 시 개인의 주체성을 지키는 방법과 철학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는데,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전략, 사용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접근, 개인적 도파민 추구를 넘어 최대한의 이익과 기회를 추구하는 전략 등이 제안되었다. 전반적으로 두 매체의 관점과 전달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며, 개인이 미디어에 휘둘리지 않고 삶과 정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다.

활동 자료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허거덩					
일시/장소	일시	11/26 수 21:14 시작 11/26 수 23:10 종료		장소	기숙사3관 세미나실	
참여 인원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최*서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장*희
	학과	글로벌비즈니스	학번	2024****	이름	오*택
	학과	경영학과	학번	2020****	이름	김*영
	참석인원(명)	4/4		참가자 대표	최*서 (서명)	
도서	도서명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번역자	
오늘의 북클럽 주제	마무리					
활동 내용 & 방법						
<p>제일 기억에 남는 책과 그 이유는?</p> <p>오*택 나는 『사탄탱고』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내용적으로는 인정하지만, 한국 독자에게는 잘 맞지 않는 느낌이다. 애초에 고어적 요소가 많고, 전쟁과 어두운 분위기가 정서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다크한 느낌이 강했다. 주류로 다루지 않는 이야기라는 점도 독특하게 느껴졌다.</p> <p>장*희 『급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 베스트셀러인가’라는 주제와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른 책들은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와닿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급류』는 과도하게 불쾌하게 다가왔다. 모순으로 시작해서 모순으로 끝나는 구조가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그래서 오히려 우습게 느껴졌다.</p> <p>김*영 『설국』이 기억에 남는다. 읽으면서 편안함을 느꼈다. 다른 책들은 단어나 상황, 등장인물 이름이 어려워 이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했는데, 『설국』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무난하게 읽을 수 있었다.</p> <p>최*서 『오만과 편견』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두꺼워서 읽기 힘들었지만,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고 읽는 동안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었다.</p> <p>‘베스트셀러’로서의 명성을 잘 설명하는 공통적 매력 요소는 무엇일까?</p> <p>오*택 책마다 깊이가 다르지만, 사탄탱고는 인간 심리를 잘 표현했고, 설국은 금단의 사랑을 다루며, 오만과 편견은 귀족들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급류는 깊이라기보다는 한국 독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시대적 배경과 묘사가 편한 점, 불안세대는 사회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매력 요소라고 생각한다.</p> <p>장*희 모든 창작물에는 각자의 수요층이 있는데, 베스트셀러는 단순히 해당 수요층만이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읽게</p>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다. 독자들이 좋아할 책이 굳어지고, 그 점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김*영

각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동일하지 않다. 각자 고유한 이유와 스토리가 있기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서

작가의 문체력과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했는지가 중요하다. 그 탄탄함이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베스트셀러 타이틀이 우리에게 준 기대감과 읽고 난 후 깨달음?

오*택

책 내용을 전혀 모른 상태로 읽었다. 노벨상이나 베스트셀러라는 기준은 단순히 재미 때문이 아니고, 나의 식견이 부족함을 느끼게 한다. 명성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의 다양한 평가가 나의 식견 부족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다. 식견을 넓혀서 읽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장*희

나는 원래 베스트셀러를 잘 사서 읽지 않는다. 그래서 큰 기대감은 없었고, 베스트셀러라는 명분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대가 커진 건 아니었다. 단지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접한 정도였다.

김*영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예상과 달랐다. 베스트셀러가 단순히 재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서

나는 베스트셀러라면 많은 독자가 읽고 좋아했을 것이고, 그 안에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기에 사람들이 공감했는지 기대하면서 읽었다. 실제로 읽으면서 어떤 책들은 독자들이 공감했던 포인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지만, 어떤 책들은 그 포인트가 잘 와닿지 않았다. 단순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필요로 했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베스트셀러를 단순히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니라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했던 이야기'라고 정의할 때, 오늘날의 베스트셀러 목록이 미래의 독자들에게 우리 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오*택

솔직히 나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읽는 베스트셀러가 미래 사람들에게는 고전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한국적 감수성이 드러나는 책들이 미래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받아들여질 것 같다. 물론 미래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적 기준은 지금과 다를 테니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이 나와 같은 시선으로 읽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장*희

나는 미래의 독자들이 현재 베스트셀러를 본다고 해도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처럼 교육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긴 책은 거의 없고, 과거처럼 책 한 권에 의미를 담으려는 시도 자체가 줄었다. 한국형 소설의 경우 교훈보다는 공감 중심이라, 미래에서는 그저 '어, 공감이 가네' 정도로만 느낄 것 같다. 책이 시대적 배경과 공감을 보여주는 정도일 뿐, 깊은 교훈적 의미는 전달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본다.

김*영

미래 세대가 지금 우리가 읽는 책을 평가할 때, 우리가 사탄탱고를 보고 '미개하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설국이나 급류를 보고 미개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이 달라지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즉, 시대가 바뀌면 평가가 달라지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관점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최*서

미래의 독자들은 자신들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현재 베스트셀러를 평가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공감하거나 재미있게 느낀 요소가 그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책의 평가와 의미는 시대와 독자에 따라 유동적일 것 같다.

활동하면서 느낀점

오*택

이번 활동은 솔직히 힘들었다. 같은 책을 읽었는데도 서로의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같은 내용을 읽었으니 답변을 들으면 다 공감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다. 그래서 스스로 문학적 식견, 즉 작품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고,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획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식견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느꼈다.

장*희

나는 평소 읽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책과 관심이 없던 책들을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 이 차이가 평가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관심이 없던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앞으로 내가 책을 고르는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양한 책을 접해보는 경험이 유익했고, 개인적 취향이나 관심사만으로 책을 고르는 습관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

김*영

나는 평소에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책을 거의 안 읽는 편이었는데, 성인이 된 이후 읽은 책의 양이 많아지면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졌다. 혼자 곱씹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관점을 접하니, 책에 대한 이해와 인상이 훨씬 깊어졌다. 같은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내 생각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최*서

이번 활동을 통해 평소라면 읽지 않았을 책들도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읽고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의미 있었다.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도 책을 읽고 생각을 공유하며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점이 특히 뜻깊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앞으로 여러 장르와 종류의 책을 읽어보고, 스스로 독서의 폭을 넓히게 될 것 같다는 기대감도 생겼다.

활동 결과

이번 심비우스 북클럽 활동은 '베스트셀러로 보는 대중 심리'를 주제로 삼아 진행되었다. 학기 중 미루게 되는 독서를 강제적으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과 감상을 나누며 생각을 확장하고자 했던 북클럽의 목적이 달성되었다. 우리는 서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베스트셀러가 단순히 판매량 이상의 어떤 매력으로 독자들을 끌어당기는지, 그 속에 숨겨진 대중 심리를 탐구하는 데 집중했다.

활동을 통해 『사탄탕고』는 난해하고 고어한 분위기, 『급류』는 불쾌함을 자아내는 모순적 매력, 『설국』은 편안함, 『오만과 편견』은 고전적인 깊이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재미와 흥미를 놓치지 않아 좋았다는 등 각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나누었다. 이러한 개별 작품의 분석을 바탕으로, 베스트셀러의 공통적인 매력 요소로 작품의 깊이, 독자 몰입도, 시대적/문화적 공감, 작가의 문체와 메시지 전달력 등이 꼽혔다. 독자들은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에서 많은 사람이 읽고 좋아했다는 신뢰감'과'읽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라는 기대감을 얻고 책을 접했다. 하지만 실제 독서 후에는 작품의 재미를 넘어 독서 경험과 시야 확장에 의미를 두거나, 문학적 식견의 부족함을 깨닫는 등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다양한 성찰을 얻었다. 이처럼 이번 북클럽 활동은 평소 관심 없던 책을 접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비교하며 독서 경험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히 재미를 위한 독서를 넘어 작품의 배경과 주제 해석을 통해 독자의 사고와 공감을 집단적 이해로 확장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활동 자료

